

의협, 의대 정원 자율 증원안 '거부'... 원점 재논의 촉구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위도 불참... 전공의들 '행정 소송 준비' 전국 의과대학장들 "입학정원 동결, 향후 의료 인력 결정" 제언

정부가 의대 정원 증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 학별로 증원된 의대 정원을 2025학년도에 한해 50~100%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뽑게 하겠다고 발표 했지만 의협이 거부 의사를 보이면서 사태 진정 기 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특히 의대학장들마저 2025학년도 정원을 동결하고, 의료계와 인력수급 문제를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서 정부 의 대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의대 정원이 늘어난 대학 들이 2025학년도에 한해 50~100% 범위에서 줄 일 수 있도록 한 정부의 '의대 정원 자율증원안'에 대해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의협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20일 회의 후 입장 문을 내고 "정부 발표는 현재의 사태를 해결하기 위 해 나름대로 고심한 결과라고 평가한다"면서도 "하 지만 근본적인 해결 방법이 아니기에 의협 비대위 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다음 주 첫 회의가 열린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 별위원회에 대해서는 "구성과 역할에 대한 정비가 제대로 돼 있지 못한 특위로 안다"며 "제대로 것 이 반영되지 못하는 위원회가 된다면 참여하는 것 이 의미가 없다고 본다"고 불참 의사를 강조했다. 의협 비대위는 또 "이 특위는 물리적으로 현재 상

황을 해결할 수 없기에 다른 형태의 기구에서 따로 논의해야 한다"며 "의사 수 추계위원회 등은 (의료 계와) 1대1로 따로 운영돼야 한다는 걸 지속적으로 말해왔다"고 설명했다.

의료개혁특위는 민간위원장과 6개 부처 정부위원, 20명의 민간위원으로 구성된다. 민간위원으로 는 의사단체를 포함한 공공자단체 추천 10명, 수요 자단체 추천 5명, 분야별 전문가 5명이 참여한다.

의협 비대위는 현 상황을 해결할 시간이 별로 없 음을 강조하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에 의대 증 원 등의 '원점 재검토'를 재차 촉구했다.

비대위는 "정부는 의료개혁의 기치를 들었고, 의 료계의 협조는 당연하지만 지금 같이 밀어붙이는 방식으로는 의료개혁을 이룰 수 없다"며 "대통령개 서는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최고 책임자로서 대 승적 차원에서 원점 재논의라는 결단을 내려주시기 를 부탁드립니다"고 요구했다.

여러 의사 직역 가운데 가장 먼저 가운데 벗어던 진 전공의들은 정부의 각종 명령에 대응하기 위해 소송에 나설 계획이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대위원장은 이날 회의에 참석치 않던 뒤 "대전협 비대위는 (정부가 내린) 업무개시명령과 진료유지명령에 대응하기

위해 행정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대학별 증원 자율 조정'으로 한 걸음 물 러선 뒤 상황에 따라 다시 전공의 대상 면허 정지 절차를 밟을 가능성을 시사한 상황에서 전공의들이 정면 대응을 택한 셈이다.

정부는 전공의들이 업무개시명령 등에 응하지 않 자 면허 정지 처분을 받아오다 당정 협의에 따라 지 난달 말부터 '유연한 처분' 방침을 결정한 뒤 처분 을 미루고 있다.

이와 함께 전국 의과대학 학장들은 21일 "2025학년도 의대 입학 정원을 동결하고 의료계와 의 협의체에서 향후 의료 인력 수급을 결정하자"고 제안하고 나섰다.

전국 40개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이 모인 한 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는 학장 ·학원장 회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대정부 호소문을 21일 발표했다.

KAMC는 호소문에서 "2025학년도 의대 입학 정원은 동결하고, 2026학년도 이후 입학 정원의 과 학적 산출과 향후 의료 인력 수급을 결정할 거버넌 스 구축을 위해 의료계와 협의체를 조속히 구성해 논의하자"고 주장했다. 이들은 "협회는 어려운 상 황 속에서 의대 학사 일정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 해 왔지만, 반복되는 개강 연기와 휴강으로 4월 말 이면 법정 수업 일수를 맞추기 어렵게 됐다"고 토로 했다.

그러면서 "교육부는 휴학계 승인을 불허하고 있



의대정원을 둘러싼 의정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21일 서울 모 대형병원에서 한 환자와 보호자가 창 밖을 바라보고 있다. /연합뉴스

지만 현 사태가 지속된다면 학생들은 집단 유급과 등록금 손실 등 학생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 해 휴학을 승인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가 "내년도에 한해 각 대학은 증원분의 50~100%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의대 정원을 정할

수 있다"고 발표한 데 대해서는 "갈등이 첨예한 상 황에서 국가 의료인력 배출 규모를 대학교 총장의 자율적 결정에 의존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반대 입장을 내놨다.

/이유민 기자 lyb54@kwangju.co.kr·연합뉴스

5월부터 진짜 엔데믹... 병원서도 마스크 벗는다 코로나19 위기 단계 '경계'→'관심'... 방역조치·의료지원 사라져

코로나19와 관련 한 감염병 재난 위 기단계가 다음달 1 일부터 가장 낮은 단계인 '관심'으로 하향 조정된다. 지 난해 8월 말 감염병 등급이 계절성 인플 루엔자(독감)와 같 은 4급이 된 데 이어 다시 위기단계까지 낮아지면서 코로나 19 유행은 엔데믹 (endemic·풍토병으로 굳어진 감염병)을 맞이하게 됐다.



자료: 질병관리청

코로나19 국내 첫 환자가 발생한 2020년 1월 20 일 이후 4년 3개월여만의 일로, 병원원 등에 대해 일 부 남아있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완전히 사라지 며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중앙방역대책본부 (방대본) 등 정부 차원의 대응 조직도 해체된다.

코로나19 중수본은 19일 지역별 방대본 본부장 주재로 회의를 열고, 5월 1일부터 코로나19 위기단 계(심각-경계-주의-관심)를 2번째로 높은 '경계'에서 가장 낮은 '관심'으로 내리기로 했다. 손영래 방대본 상황총괄단장은 "현행 지침상 단

계 하향을 순차적으로 할 필요는 없다"며 "현재 방 역 상황 자체가 워낙 안정적이고, 치명률도 낮은 데 다 특별히 위험한 변이가 관찰되지 않아 두 단계를 낮췄다"고 설명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올해 3월 첫째 주만 해도 4705명이었으나 이달 돌 례 주에는 2283명으로 줄었다. 4월 둘째 주 기준 코로나19 변이 중 JN.1 변이가 83.7%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단기간에 유행을 우려할 만한 변이 가 확인되지 않고 있다. 위기단계 하향 조정으로 남 아있던 방역 조치나 의료지원 정책도 대부분 사라 진다. /연합뉴스

김영록 전남지사 유럽 순방길 해상풍력 국제 협력기회 모색

김영록 전남지사가 6박 7일 일정으로 지난 20일 덴마크·독일 순방길에 올랐다.

덴마크는 순방도가 교육적으로 추진하는 해 상풍력 산업의 메카로, 이번 방문을 통해 전남 해상풍력 발전의 청사진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 된다.

순방 첫 일정인 22일(현지 시각) 덴마크 기업인 베스타스, 머스크, 목포시와 신항만 내 해상풍력 터 빈공장 투자협약(MOA)을 할 계획이다.

23일에는 오펜세에 있는 스마트 항만과 베스타 스의 터빈 공장을 방문하고 24일에는 덴마크 클럽 레프에 위치한 SBS 가축분뇨 바이오가스 시설을 찾아 탄소 저감 효과, 악취 저감 시설을 집중적으로 살핀다.

독일 베를린에서 25일 열리는 전남도 관광설명 회에도 참석, 현지 여행업계 및 언론인들을 대상으 로 2024년부터 2026년까지 3년 간 진행되는 전남 세계관광문화대전을 통한 관광 활성화 계획과 전남 관광의 매력을 소개한다.

김영록 지사는 "전남의 해상풍력, 바이오에너 지 등 에너지신산업과 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세계 여러 국가들과 국제적 협력 기회를 모색해 지역경 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는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 고 말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광주시 "하루 만보 걷고 비만예방하세요"

22~29일 '걷기 챌린지' 이벤트... 모바일 쿠폰 선착순 증정

광주시는 "비만예방관리를 위한 '하루 만보 걷기' 챌린지와 민·관 합동 비만예방관리 행사 를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하루 만보 걷기 챌린지'는 22일부터 29일까지 진행되며, 하루 최대 1만보를 걷고 '광주시 통합건강증진사업 지원단' 카카오톡 채널 계 정 추가후 1대 1 대화로 만보 걷기 인증을 확인 하면 된다. 총 3회까지 참여할 수 있으며, 이벤 트 당첨자 중 선착순 300명에게 커피 모바일쿠폰 을 증정하고 건강한 비만예방관리 방법 등 건강소식도 받을 수 있다.

시는 또 오는 27일 오전 서구 롯데아울렛 월 드킴점 앞에서 5개 자치구 보건소, 통합건강증 진사업지원 및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사업지 원단, 금연지원센터 등 지역사회 9개 기관과 함께 비만예방관리 행사도 진행한다.

행사에서는 설당 함유량과 패스트푸드 지방 알기, 정상 복부둘레와 내 복부둘레 알기, 건강 생활실천 퀴즈 이벤트, 비만조기 착용제형, 줄

넘기 뛰기, 금연상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 련된다.

또 기념품으로 피하지방 측정기, 줄넘기 등 을 배포해 자신의 체지방을 확인하고 건강한 신체활동을 실천할 수 있도록 했다.

2023년 질병관리청 지역사회건강조사에 따 르면 광주시민의 비만율은 29.2%로 전년 대비 1.8%포인트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걷기 실천율은 46.7%로 전년 대비 2.1%포인트 줄 었다. 또 금연·절주·걷기를 모두 실천한 사람 의 비율을 나타내는 건강생활실천율도 36.5% 로 전년 대비 1.3%포인트 감소하는 등 건강생 활습관 개선이 필요하다는 게 광주시의 설명이 다.

손옥수 광주시 복지건강국장은 "이번 행사 를 통해 비만은 질병이라는 인식을 갖고 올바 른 식생활과 신체활동을 실천할 수 있는 계기 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일보 72년 호남 최대 부수·열독률 1위

못 받은 돈 회수

※ 1년 이상 다른 신용정보회사에 의뢰 후 못받으신 건도 가능합니다!
특수채권 담당자 전문 추심합니다.
25년 경력 국가공인 신용관리사가 직접 관리합니다.

선수금 출장비용 없음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전세보증금, 경매건 및 미배당채권, 상속채권 전문 회수
- 채무자(신용)재산조사만 의뢰 가능
- 법인공사대금, 각종 외상 미수금 회수 전문

전문추심인 직접관리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차용증
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녹취 등 각종채권상당

중앙신용정보 직통전화 062)521-4109
010-2785-0073

태양광발전사업 허가 신청을 위한 주민의견 수렴공고

발전사업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전기사업법 시행령 제4조의2)

- 발전사업개요
 - 발전소명: (유)천사-남해양광 태양광발전소 사업
 - 발전소위치: 전남남도 신안군 지도읍 광명리 1701번지외 20필지 (총 30필지)(해상면적 1701-5, 1701-7, 1701-9, 1701-11, 1701-13, 1704-17, 1704-19, 1705-21, 1705-27, 1702, 1702-2, 1702-6, 1702-7, 1702-9, 1702-15, 1703-8, 1703-9, 1703-14, 1703-15, 1703-16, 1703-19, 1703-25, 1703-30, 1706-23, 1706-21, 1706-26, 1701, 1703, 1703-6, 1705-29)
 - 발전소면적: 738,497㎡
 - 공고기간: 2024. 04. 15. - 2024. 04. 24. (10일)
- 발전사업의 주요내용
 - 발전용량: 97.9875MW
 - 사업개시예정일: 2027년 01월 이후
 - 사업운영기간: 2027. 01. 01. - 2046. 12. 31. (20년간)
- 발전사업 허가 신청자
 - (유)천사-남해양광 대표이사 남성민
- 주민의견 제출
 - 기간: 2024. 04. 15. - 2024. 04. 24. (10일)
 - 의견제출방법
 - 전화: 062-263-8211 팩스: 062-263-8212
 - E-Mail: hant0485@hanmail.net
- 발달장소
 - 장소: 신안군청 신재생에너지과 미래에너지팀
 - 주소: 전남 신안군 암매음 천서로 1004
 - 전화: 061-240-8334

※ 해당 사업관련 자료열람을 원하시는 경우, 원 번호로 연락 주시면 자료열람을 하실 수 있으시며 이통이 불편하신 경우 저희가 직접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태양광발전사업 허가 신청을 위한 주민의견 수렴공고

발전사업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전기사업법 시행령 제4조의2)

- 발전사업개요
 - 발전소명: (유)비룡신안태양광 태양광발전소 사업
 - 발전소위치: 전남남도 신안군 지도읍 광명리 1661번지외 31필지 (총 32필지)(해상면적 1616-6, 1616-8, 1616-2, 1616-4, 1620, 1620-2, 1621, 1621-2, 1622, 1622-2, 1622-5, 1617, 1617-2, 1617-4, 1617-6, 1618, 1618-4, 1619, 1619-2, 1619-4, 1616-10, 1614-2, 1614-3, 1614-4, 1614-5/내양리 1704-25 / 사동리 1976, 1976-2, 1977, 1977-2)
 - 발전소면적: 740,863㎡
 - 공고기간: 2024. 04. 15. - 2024. 04. 24. (10일)
- 발전사업의 주요내용
 - 발전용량: 99.000MW
 - 사업개시예정일: 2027년 01월 이후
 - 사업운영기간: 2027. 01. 01. - 2046. 12. 31. (20년간)
- 발전사업 허가 신청자
 - (유)비룡신안태양광 대표이사 김도성
- 주민의견 제출
 - 기간: 2024. 04. 15. - 2024. 04. 24. (10일)
 - 의견제출방법
 - 전화: 02-3440-7841 팩스: 02-6281-9001
 - E-Mail: 218001@daewo.co.kr
- 발달장소
 - 장소: 신안군청 신재생에너지과 미래에너지팀
 - 주소: 전남 신안군 암매음 천서로 1004
 - 전화: 061-240-8334

※ 해당 사업관련 자료열람을 원하시는 경우, 원 번호로 연락 주시면 자료열람을 하실 수 있으시며 이통이 불편하신 경우 저희가 직접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안 팔리는 부동산 교환전문

010-3605-5000

지분임야

바로 삽니다

010-5962-3200

채권신고공고(2차)

주식회사 상진해운
위 회사는 2024년 4월 17일 임시주 주총회에서 해산결의 되었으므로 본 회사에 대하여 채권이 있는 채권자는 2024년 6월 18일까지 그 채권액을 본 회사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위 기일 내에 신고가 없으면 청산에서 제외됩니다.

2024년 4월 22일
주식회사 상진해운
여수시 용천로 189, 108동 902호 (용천동, 용천부영1차아파트)
청산인 채은숙

ABC협회인증 호남 최대 발행 부수

독자와 함께 걸어온 길 72년

광주일보 문화예술매거진 **에나**

광고문의 (062) 227-9600 | 신문구독 (062) 220-0551 | 예향구독 (062) 220-0550